향후 주류산업 변천방향 모색

강 신 일
〈한성대학교 사화과학대학 경제학과〉

■目 次■

1. 서
2. 경제체제와 산업환경 변화
3. 주류산업의 국내외적 상황
4. 향후 주류산업의 변천방향 모색

1. 서

우리 나라는 현재 경제개발 진입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1998년 2/4분기 GDP성장률이 -6.6%에 이르고 1998년 말에는 GDP성장률이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12월 현재 공식적인 실업자가 150만을 넘고 있다. 여기에다 부도 기업수도 지난해 연말 이후 2만여개에 이르고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난해 대비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1998년 12월 현재 수출 호조, 환율안정 등으로 외환부족과 금융경색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보여지며 경기 하강속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모형이 각국의 중요한 기본 성장모형이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신화가 지난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아시아 경제 모형 실패,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생산성 향상보다는 요소 투입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라고 보는 시각등 다양하다. 혹 서구 선진국의 음모설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근원은 경제 주체인 기업 노동자, 금융, 및 정부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단기적인 financial

panic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 치유하지 못하면 멕시코, 영국 등과 같이 제2의 IMF가 다시 찾아 올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류 산업을 포함하여 우리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를 빨리 이해하여야 하고 경제 주체 각각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과거 10여년 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다만 경제 주체들간의 손익계산으로 과거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를 주장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지체할 시간여유가 없다. 빠른 시일 내 구조조정 해결에 적응해야 한다. 문제는 얼마나 고통을 참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의 고통이 클수록 우리의 경제 및 산업 구조는 튼튼해지고 현재의 고통을 미래에 전가하면 우리의 경제 및 산업 구조는 부실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향후 주류 산업을 포함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주는 향후 국내외 환경 및 경제체제 변화를 조명한 후에 기업, 정부, 및 소비자등 경제 주체 각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진행 되어야 될 일을 찾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향후 주류 산업의 변화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2 경제체제변화와 산업환경 변화

20세기 자본주의는 기술의 발달, 공산주의의 멸망, 국제화, 노령화등 새로운 경제 환경의 力動性에 놓여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적인 사회 시스템이 없이 문제만 드러내고 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신 자본주의"가 출현될 것이다.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이념의 발전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출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자본주의 시스템은 경쟁자가 없다. 새로운 제도로 가기 위해 경쟁 시스템이 있어야 되나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마치 고대 이집트, 로마와 중세 유럽 및 중국의 경우처럼 경쟁이 없는 시스템과 같이 보인다. 경쟁이 없는 시스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결국 우리의 자본주의도 변화가 없다면 과거의 고대 이집트, 중국 경우처럼 망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미국의 MIT교수인 Telser는 경제체제 변화 動因을 기술(technology)과 이념(ideology)의 존재 여부와 배합 여부에 따라 시스템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로마의 경우 多神을 존중해 주고 정복민을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 주며 통제 및 명령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이념적인 측면에서 발달이 되어 있으나 기술면에서는 크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초기 자본주의의 경우 증기 엔진의 기술 발전과 탐욕과 상인 우대의 이념이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20세기 자본주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실업의 증가와 임금의 절하, 이에 따른 계층간 불평등의 증가이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 적자 및 경제 성장률의 감소 현상이 있다.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새로운 자본주의 system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기업, 및 근로자 등의 역할이 분명하고 서로가 발전 할 수 있는 그러한 system이어야 한다.

21세기에 예상되는 미래의 자본주의 system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통신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서 기술과 지식이 각국의 비교 우위 요소가 되는 사회가 도래한다.

대량생산 체제하에서의 기업조직, 정부 역할, 기업과 근로자 관계, 기업과 소비자 관계, 기업간 불균형 등의 문제는 정보화 기술 발달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고 정보 취득 비용의 감소로 세계 시장은 보다 더 완전 경쟁에 가깝게 되어 자원 배분에 문제점은 발생치 않고 형평성의 문제만 남게 된다. 정보화 시대에서 기업들의 집합체인 그룹 등은 정보 취득 비용등 거래 비용의 감소로 계속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신 자본주의에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형평적인 문제는 조세의 徵稅로 정부의 사회보장 기금을 축적하여 현행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래의 산업 구조는 지식산업 구조가 확실하다면 知識産業 구조를 위한 장기적인 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 투자는 소비 부문에서 보다는 생산 부문에서 활성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기술 투자는 자금력이 확보되고 기술 역량이 있는 대기업이 맡아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절대 지출이 큰 project의 경우 대기업이 위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부의 R&D의 역할도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 단계(invention)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R&D and innovation)및 모방 단계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도 "주인 있는 경영"이 가능한 기업만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창조적인 산업의 창출을 잘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Microsoft사, Miliken사, Wal-Mart사, Mars사와 같이 소유가 집중된 기업의 경우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투자자들이 단순히 배당금만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가 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유가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수한 유인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다. 주인 있는 경영을 위해 기업의 과반수의 주를 가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얼마만의 소수의 주를 갖고도 안정적인 주인 있는 경영이 가능할 수가 있다. 영국의 20-20 법칙, 미국의 10%등의 예를 보아도 우리 나라의 경우 소수의 주식을 갖고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황금 분할 선이 요구된다. 즉 과반수의 주식을 갖지 않아도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별 기업별 적정선(cut off piont)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각국별로 기술 패권 주위가 팽배됨에 따라 각 기업은 국별로 전문화된 기술 역량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영이 요구된다. 정보화와 글로벌 경영을 위해 현재의 크기 및 기업 수를 강조하는 계열식 구조는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국제 자본 이동도 빨리 진행되어 선진국과 경쟁 할 수 있는 금융 system을 구축하지 못하면 국제 자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정부의 과감한 금융 구조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 부문도 80년대 후반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넘는 임금 상승의 결과가 오늘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기도 한다면 미래의 노동운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가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주류산업의 국내외적 상황

현재의 주류 생산 기업 및 산업의 국내외적 상황은 어렵다고 본다.

우리 주류 산업내 기업환경이 직면한 경영환경의 특징은 내수침체와 금융경색이 겹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최근 구조개혁에 부응하기 위해 구조개편 압력을 받고 있으며 금융, 경쟁, 및 노동 정책과 제도 변화로

기업들의 순응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계에서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요구하는 기대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주류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변화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산업 및 기업의 환경변화,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각계에서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요구하는 높은 기대 수준등 이다.

첫째, 최근 기업 환경 변화는 IMF구제 금융으로 기인한다. 살인적인 고금리, 경기의 전반적인 하강으로 소비 감소, 기업들의 구조 조정 압력 등이다. 이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나 주류 산업은 국내 소비에 연결화 되어 있는 내수산업이며 또한 최근의 규제완화로 주류의 다양화를 위해 많은 시설 투자를 한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최근의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일시에 실시되어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부실 채권 정리,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등 금융정책은 기업들에게 일시적으로 금융비용부담과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주류 유통업 및 제조업의 진입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1999년부터는 주정 제조업까지 전면 개방이 될 예정이다. 세계 주류 major사와의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현재의 금융 및 산업 system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류 업계 입장에서는 힘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IMF체제 이후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조기 폐지는 한국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직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정글에 던져지게 된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차입금 손비 강화, 조세감면 축소등 조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정리해고 및 노조의 정치 참여등 최근의 노동 및 고용정책은 현행의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마찰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고 결합 재무제표등 투명성 강화 정책은 과거와 같은 기업 경영전략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 및 EU는 우리나라 주세부과체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 WTO 주세panel에서는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의무조항(GATT 제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분쟁해결 절차에 의거, WTO 주세panel에 상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위스키세율를 소주 세율과 형평적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류 중 소주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는 주류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산 철강 반도체가 유럽 및 미국에서 덤핑조사를 받는 등 그렇지 않아도 여러 악재로 불안한 수출 전선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업역할의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지 못하다는 사회각계의 요구와 기대가 증대하여 기업인의 "기업 하려는 의지" 즉 기업가정신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살펴온 바대로 주류산업의 국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현재의 어려움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이다. 21세기 환경변화와 현재의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주류업계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주류업계만의 변화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 변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 맞는 경제체제 구축,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전환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이겨내는 고통이 크면 클 수록 빠른 시일 내에 어

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

4. 향후 주류산업의 변천방향 모색

우리 나라 주류 산업의 향후 국내외적 상황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의 국가 운용 system, 산업 운용 system, 기업 운용 system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케 한다. 또한 국가인 정부, 기업 및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과거의 국가 운용 system은 폐쇄적 정부운용 경제 system이었다. 1980년 초부터 시작된 세계의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OECD 가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OECD 각국의 기준에 맞는 국가 system을 운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부 규제,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은 없어지게 된다. 현재 기업의 생존과 구조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기업활동에 직접 개입보다는 기업의 적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형평적인 문제의 해결은 조세정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향후 주류산업 system의 변화도 예상된다. 주류산업은 식음료 산업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식음료 산업은 대다수 기업들의 영세성, 기술 개발 투자의 저조,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정부지원의 상대적 부족, 그리고 비교적 엄격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있으며 대외경쟁력도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식음료 산업은 국민경제내 비중도 높고 국민생활에서 소비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상당부문이 식품가공으로 소비되고 있어 취약산업인 농수산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산업으로 생각된다.

주류산업의 경우 1987년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주류 생산 및 유통 산업의 진출입이 허용되고 가격의 자유화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막걸리 판매지역제한 폐지 및 주정배정제도 폐지등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이는 주류업계의 국내 보호막을 없애고 세계 유수의 주류 업계와도 명실 공히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소비자 및 세계 소비자들의 needs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소비자는 고가의 고급품과 저가의 중급품으로 시장이 양분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통마진이 적은 할인점이 수익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주류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고급품과 저가의 중급품을 위해 원료 개발, 포장 개발,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사후관리 제도들에 대한 산학 연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 system의 변화도 예상된다.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및 외국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system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기업 투명성 강조를 요구하는 기업 지배 구조 조정 (Governance Restructuring), 부채 감소 및 상호 보증 해소등 재무구조 조정 (Financial Restructuring), 핵심 경영 확보를 통한 사업 구조 조정 (Business Restructuring) 등 3개의 구조 조정이 변화하는 기업 system이다. 이에 따라 기업 조직 변화, 부채 비율 축소 및 계열화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재무의 건전성 유지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선진 외국 기업의 투자와 국가 외환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주류 산업내 일부 대기업들이 합작투자 및 외자 유치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더욱 더 노력을 하여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부도 기업과 같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할 수가 있다. 단순히 일과성으로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면 기업 개혁 과제는 실패하게 된다.

경제 원리에 따라 이윤이 창출되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이 우선시 되고 이러한 산업 내에서 타 기업보다 기술 혁신, 조직 혁신, 생산 혁신 및 영업 혁신이 이루어진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재벌기업 또는 대기업보다는 핵심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기업조직에 대한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처럼 수십 개의 관련 비관련 기업의 통합경영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Casio기업이 LCD(liquid crystal displays)기술에 대해 핵심 역량이 있어 계산기, 시계, 및 전자 수첩등 다수의 제품이 생산하게 되었다. 우리의 주류 기업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핵심 역량이 있는 관련 상품의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 주종 상품의 기술개발로 세계적인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의 창출이 중요하다.

기업의 조직 pattern변화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변화가 예상된다. 수평적 변화는 주로 전략적 제휴와 M&A로 이루어진다. 전략적 제휴는 최근 세계 주요 비행기 회사들이 했고 우리 나라의 경우 LG카드사와 삼성 카드사와의 CD기 통합 제휴가 1998년 8월에 이루어졌다. 주류기업들간에도 시장 접근용이 또는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해 제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적과의 동침"도 필요하다.

기업간 M&A도 한가지 방법이나 이 방법은 우리의 경우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경우 동업이 잘 안된다는 속설도 있고 실지로 서로 조직 문화가 다른 기업끼리의 결합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악화시킨 사례가 많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수직적 변화는 현재와 계열 구조 변화나 프랜차이즈 사업 도입이다. 현재의 계열식 구조는 핵심 역량에 의해 연결되어 있지 못하며 유지가 필요 없다. 프랜차이즈 제도로의 변화는 조직을 모두 끌어 안고 가지 않고 감시 및 감독이 가능한 사업은 프랜차이즈 방법으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규격품이 생산되고 반복적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프랜차이즈 제도로의 변화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문제, 규제 완화, 통상문제, 국내농업보호등 각종 정책을 관련부처간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협조 조정체제 구축이 요망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정부 규제에 안주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다. 선별적 상품의 기술개발로 기술경쟁력 있는 핵심 상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과 근로자 및 소비자 등과의 신뢰회복이 빨리 이루어져 결집된 노력만이 현재 및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